



## 추병직·이백만·정문수 사의

〈건교부 장관〉 〈靑 홍보수석〉 〈靑 경제보좌관〉

# 부동산정책 실패 자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4일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를 수용,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조만간 후임 인선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추 장관 등의 사의 표명에 대해 "민심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한나라당은 나아가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3·10면〉

추 장관과 정 보좌관은 각각 내각과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이들의 교체는 형식적으로는 사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밟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문책성 경질 인사로 해석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과 이 수석, 정 보좌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세 분이 각각 개별적으로 오늘 오전 사의를 전달해 왔고, 이병만 비서실장이 오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고 밝힌 뒤 "대통령은 사의표명 사실을 보고받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추 장관 등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노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를 수용,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이 추 장관 등의 사의 표명 사실을 신속하게 언론에 발표한 점에 미뤄, 사의를 수용하고 이들을 교체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결심이 었다는 것이 청와대 내부 분위기이다. 윤 대변인은 추 장관 등의 사의

표명 사유와 관련, "각각의 사유들이 있었지만 최근의 일들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사표를 수리,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건교부를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토록 하고, 청와대 참모진인 이 수석과 정 보좌관은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3인의 사의 표명이 여권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한나라당 등 야당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는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끓는 서울 집값... 얼어붙은 광주·전남

## 부동산자금 수도권 유출 심각... 분양·경매시장 침체

서울의 집값 급등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가 경매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연일 고가 경매 물건의 인기가 치솟고 미분양아파트가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지역 등 지방 부동산시장은 상대적으로

인까지 하락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자고 나면' 집값이 치솟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부동산의 투자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으로, 지방 투자자들의 수도권 자금 유출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4일 법원 경매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에 부처진 수도권의 부동산 가운데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된 물건은 총 1천65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월 355건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100%를 넘는 물건이 월간 1천건을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에서 감정가 이상 낙찰 물건의 1천건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이 전체의 73%(776건)에 달하면서 수도권 '집값 광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지난달 주거용 부동산의 고가 낙찰 건수가 각각 14건, 24건에 그쳤다. 이는 수도권의 1,



8%, 3.1% 수준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수익이 날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는 또 지난달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이 86.9%에 그쳐 지난 1월 88.24%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2면으로 계속>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초겨울 상큼한 딸기. 담양군 남면 정곡리 박우규·이옥순 부부가 14일 국내 육종품종인 조생종 '설향' 딸기를 첫 수확하고 있다. 박씨의 조생종 딸기는 1kg 한 상자 당 1만2천원에 전국 유명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기존주택도 대출규제 적용 2금융 담보인정 50%로 하향

### 부동산안정화대책 오늘 발표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이 기존 주택으로 확대돼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이용해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낮추고 공공택지의 조성 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한편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

의를 열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DTI 적용 기준과 비율, 대상 지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DTI를 적용받는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15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40%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은행·보험사보다 높게 책정된 저축은행, 신탁,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를 50%로 하향 조정하고 비투기지역의 LTV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습스

## '전효숙 동의안' 또 파행

### 한나라당 의장석 점거·철야 농성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 단상을 점거한 채 철야농성에 돌입, 국회가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관련기사 3면>

이근현, 공성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열린우리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현제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종료와 함께 의장 단상을 점거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일부 본회의장에서 머물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치하며 단상 점거 저지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전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일보 수습기자 오늘 원서 마감

후원학원 동맹 6.6년 역사상 최강  
남부대학교  
http://www.nam.ac.kr  
▶ 행정전화: 062-970-0114 ▶ T: 062-970-5009-4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행정전화: 065-5001 ▶ T: 065-360-3000

대한민국 VIP NO.1 최호정 대표  
다스클럽  
042-229-3222

국내 최고 권위의 물가전문지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큐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최수호 김동원